# 대전여성가족정책센터 BRIE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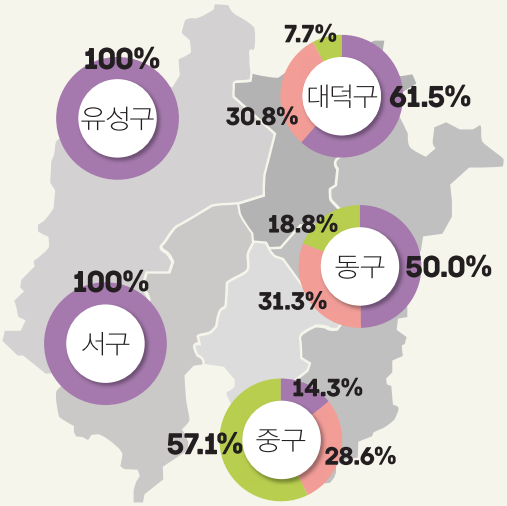
2017 No.7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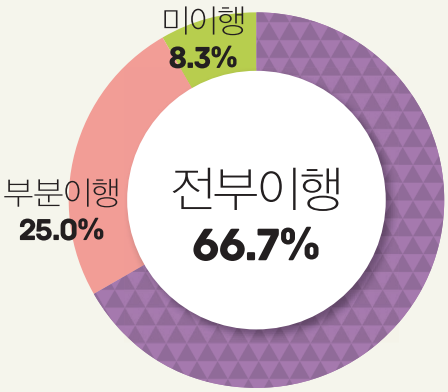
**발행처** | 대전세종연구원 대전여성가족정책센터
**발행인** | 박재묵 **편집인** | 주혜진 **디자인** | 디자인스튜디오203 대전 **발행일** | 2017. 11. 30.


## 2017 성 주류화 제도 이행점검 및 모니터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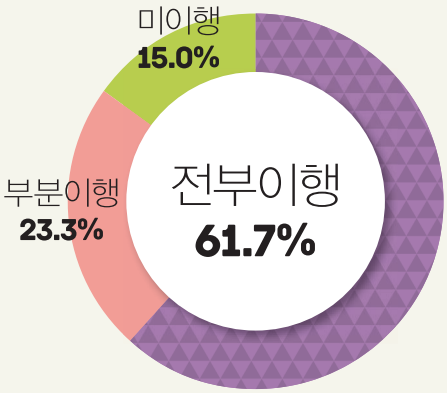
# 우리동네 골목길은 안전할까?

**대전시 및 5개 기초자치단체 성별영향분석평가서 안전분야 사업 이행점검 현황**




대전시




합계

대전여성가족정책센터는 2012년부터 매년 성 주류화 전략 실천 모니터링을 실시해 오고 있다. 올해는 2016년 대전시 지역 성평등 지수 결과*를 반영하여, 2015년에 작성된 대전시와 5개 기초자치단체의 성별영향분석평가서 중 안전분야 사업을 대상으로 성평등 조치사항에 대한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분석했다. 또한 이행점검과 연계해 골목길 보행자 안전을 점검해보는 시민참여 모니터링을 실시했다.

이행점검은 성평등 조치사항이 기재된 안전분야 사업 60건을 대상으로 증빙자료를 검토하고, 이행 현황을 '전부이행', '부분이행', '미이행'으로 분류해 수치화 했다. 합계 이행율은 전부이행 61.7%, 부분이행 23.3%, 미이행 15%로 나타났으며, 자치구별로는 서구와 유성구가 가장 높은 이행율을 보이고 있고, 가장 낮은 이행율을 보인 곳은 중구로 나타났다.

* : 여성가족부가 발표하는 『2016년 지역별 성평등 수준 분석 연구』를 살펴보면, 대전시 분야별 지역성평등 지수에서 전년 대비 안전분야가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함.
** : 조치사항에 기재한 사업 추진 계획의 이행여부를 검토한 결과 모두 시행한 경우
*** : 조치사항에 기재한 사업 추진 계획의 이행여부를 검토한 결과 일부만 시행한 경우


대전여성가족정책센터
Daejeon Gender Equality & Family Policy Center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85 (선화동287-2) 대전세종연구원 대전여성가족정책센터
Tel. 042.530.3548~50 Fax. 042.530.3559


본 메일은 발신전용입니다. 메일수신을 원하지 않을 경우 수신거부를 통해 정보를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모니터링은 시민 모니터단이 심층적으로 살펴 본 '현장형 성별영향분석평가'로 실질적인 정책 수행 상황을 살펴봄으로써 성인지적 정책 개선방안을 제안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2017 성 주류화 제도 모니터링 진행과정

**7월 — 자문회의 (3회)**

- 모니터링 대상 과제 선정
  - '골목길 보행자 안전'
- 모니터링 지표 설정 및 대상 지역 선정
- 대상 지역 선정 기준
  - 1단계 : 도시 재생 효과 높은 지역 분류
  - 2단계 : 생활도로 지정 확충 필요 지역
  - 3단계 : 밤길 보행자 안전 취약 지역
- 모니터링 지표 개발 및 수정
  - 1세대 CEPTD 원리 및 성인지적 관점 모니터링 지표 종합
  - 직접 보고, 듣고, 물어보는 주민참여 모니터링 지표

**8월 — 모니터단 모집**

- 각 구별 여성친화도시 서포터즈 활동가 2인, 총 10인 선발

**9월 5일 — 모니터단 교육 워크숍**

- 성인지적 정책 모니터링과 대상 정책 사업에 대한 이해
- 모니터링의 목적 및 방법, 보고서 작성 방법 등 교육

**9월 6일 ~29일 — 모니터링 실시**

- 각 구별 보행자 안전 위험 지역에 대한 주민참여 모니터링 실시
  - 현장방문, 지역주민 인터뷰, 지역 공공기관 담당자 인터뷰

**9월 20일 — 모니터링 중간보고**

- 모니터링 멘토 및 내부 연구진과 모니터링 중간 결과, 수행 계획, 성인지적 정책 개선안 등 논의

**11월 29일 — 이행점검 및 모니터링 최종 결과 발표**

- 이행점검 및 모니터링 활동 내용과 정책 제안 사항 등 결과 공유
- 최종보고서 발간 및 배포

교육워크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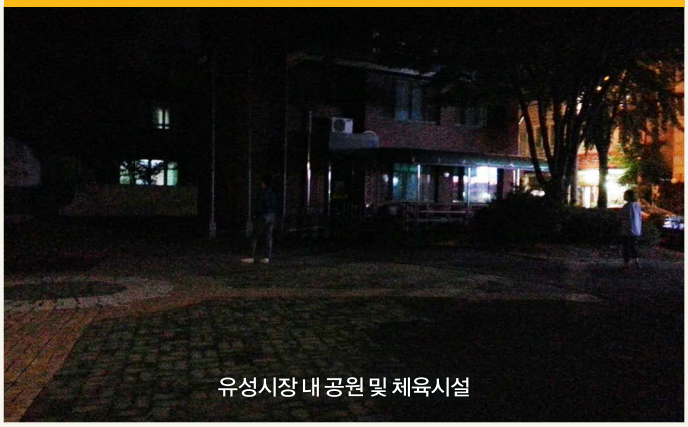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

# 모니터링 현장 및 주요 개선안

## 유성구

### 나 어디 있을까? 숨바꼭질 최고의 장소



유성시장 내 공원 및 체육시설

있으나 마나 한 어둡고 미비한 보안등, '범죄 발생' 위험

**보안등 조도 개선 및 추가 설치 제안**

## 대덕구

### 안심벨? 장신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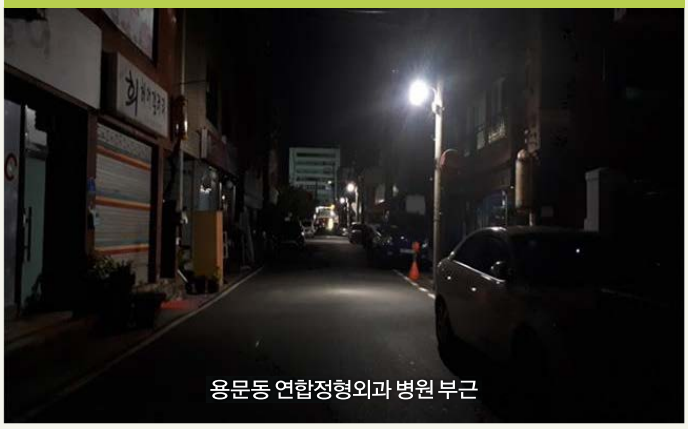
신탄진고 뒤, 한신아파트 옆 공원

안심벨 부착 위치 높아, '이용 불편'

**아동 · 여성 · 장애인 등의 신체 및 특성 고려해 부착 필요**

## 서구

### 가로등 아래 멀리뛰기



용문동 연합정형외과 병원 부근

보안등 사이 간격 넓고 높아, '사각지대' 발생

**보안등 간격 · 높이 조정 및 위치표시 안내판 가시성 확보 필요**

## 중구

### 우리 동네주민은 외줄타기 고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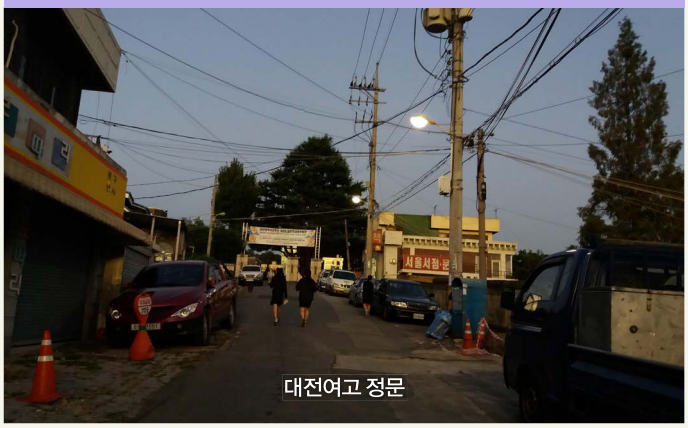
서남부터미널 유등천로 324번길

불법주정차와 주행차들 사이 아슬아슬한 '곡예보행'

**불법 주정차 단속 및 안내표지판 설치 제안**

## 동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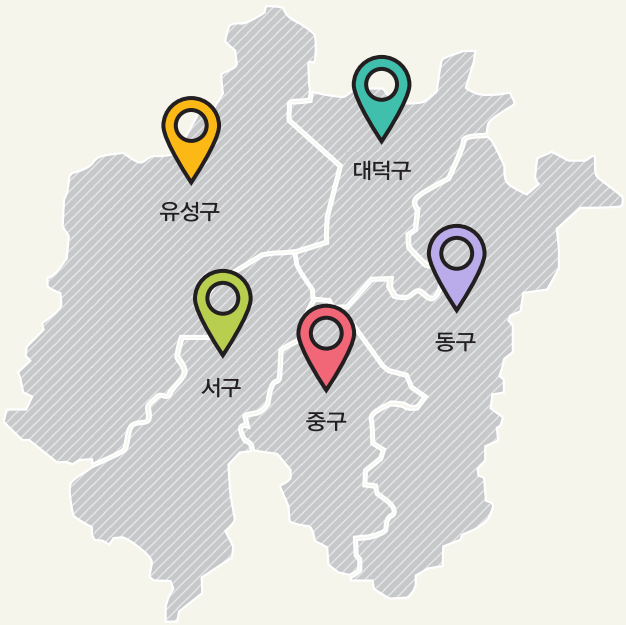
### 학교 가는 길이 무서워요!!



대전여고 정문

구분 없는 인도 · 차도, 보행자 위험

**인도 · 차도 구분하는 블록 및 펜스 설치 필요**



# #대전여성가족정책센터 #대전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11월 #이야기

제2회 젠더 콜로키움

## ‘스마트한’ 세상과 길 위의 소녀들

강연자 | **조진경**_십대여성인권센터 대표

대전여성가족정책센터는 여성·가족분야의 새로운 이슈와 담론을 파악하기 위해 젠더 콜로키움을 개최해 오고 있다. 지난 11월 3일 개최된 제2회 콜로키움에는 ‘한국 십대 성매수 범죄 피해실태와 대책’이라는 주제로 조진경 십대여성인권센터 대표의 발표가 있었다. 조 대표는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사이버상에서 이루어지는 성범죄 알선·유인·조장 현황을 살펴보고, 사례를 통한 성매수 범죄 실태와 피해자 지원 체계 및 정책에 주목했다. 이후 조 대표와 참여자들은 아동, 청소년 대상 성착취 범죄의 예방과 대책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는 시간을 가졌고, 성매매를 성적학대와 성착취로 보고 청소년을 피해자로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2017 성 주류화 전략실천 모니터링 최종보고회

## 골목길 안전 취약 지역 모니터링 결과 공유

대전여성가족정책센터는 대전시 5개 자치구별 골목길 보행자 안전 취약 지역을 선정하고, 지난 8월부터 시민참여 모니터단을 운영했다. 지난 11월 29일에는 모니터단, 전문가, 담당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7년 성 주류화 전략 실천 모니터링 최종보고회’를 개최해 그동안의 활동 내용과 성인지 적인 정책 제안사항 등의 결과를 공유했다. 모니터단은 최종워크숍에서 보행로와 차로 구분을 위한 경계석 또는 노면표지 설치 및 정비, 안전한 야간 통행 보장을 위한 보안등 조도 및 위치 개선, 어린이 및 여성의 신체 크기를 고려한 안심벨 부착 등 다양한 의견들을 제안했고, 류유선 대전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장, 김민영 중도일보 기자가 토론에 참여해 골목길 보행 안전을 위한 성평등 개선안을 제안했다.

대전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성주류화 포럼

## 성별영향분석평가와 여성친화도시 정책의 효율적 연계방안 모색

대전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는 11월 10일 ‘성별영향분석평가와 여성친화도시 제도의 효율적 연개방안 모색’을 주제로 포럼을 개최했다. 이미원 도시와젠더 대표와 김경희 대전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가 발제했으며, 염인섭 대전세종연구원 책임연구위원, 윤금이 아산시 여성정책보좌관, 임정규 한국성인지예산네트워크 운영위원, 심준영 전북대학교 강사, 이현정 대덕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총괄담당자, 김복렬 세종특별자치시 시의원이 토론자로 참가해 대전시와 세종시의 여성친화도시 사례 및 성별영향분석평가와의 연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